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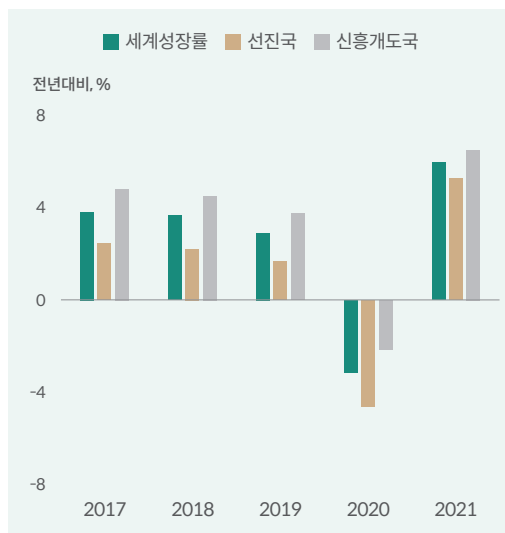
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

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박선우 분석관

코로나19 이후 수요-공급의 불일치가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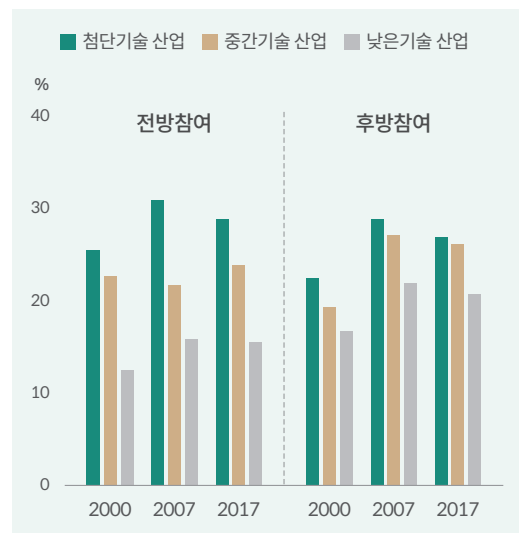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은 불안정한 모습
 -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수요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
 - IMF는 2021년 10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세계성장률이 2020년 -3.1%에서 2021년 5.9%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
 - 그러나 과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(GVC) 심화로 인해 코로나19 충격 이후 세계 곳곳에서 수급불일치(mismatch)가 발생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
 -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을 살펴보면 첨단산업의 경우 전방 및 후방 참여율이 2000년 각각 25.3%, 22.3%에서 2017년 28.8%, 26.8%로 상승
 -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국가별 분업구조로 기업의 효율성·수익성은 높아졌으나,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정 생산부문에서 발생한 공급 차질이 최종재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을 초래

[그림 1] 세계 GDP성장률 추이



주: 2021년과 2022년은 전망치
자료: IMF(2021.10.)

[그림 2] 산업별 GVC 참여율



주: 전방참여(국내생산 중간재의 해외생산 투입),
후방참여(해외생산 중간재의 국내생산 투입)
자료: WTO(2019.4)

공급망 훼손 사례와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

▪ 세계 수요 증가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, 2021년 들어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세계 공급 부족 문제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침

-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으로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
- 최근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차질, 노동수급 불일치, 해상물류의 지연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부각

▪ 자동차용 반도체의 공급차질이 자동차생산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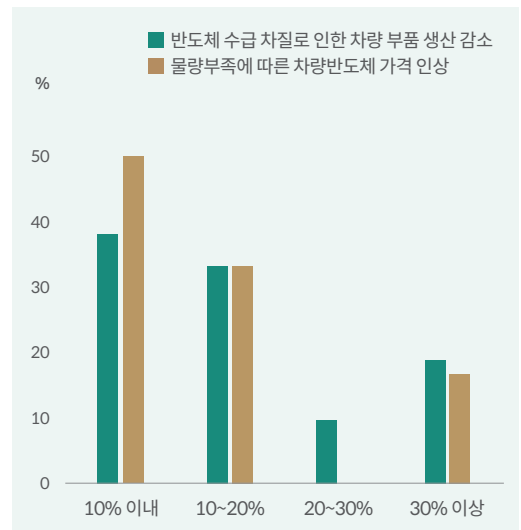
-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인 르네사스(일본)는 지진(2월), 화재(3월)로, NXP(네덜란드)와 인피니언(독일)의 미국 텍사스주 공장은 한파로 인한 정전(2월), TSMC(대만)는 예상치 못한 정전(4월)으로 생산을 중단하여 자동차생산이 차질
- 최근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조립·검사 업체가 밀집해 있는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동 업체들의 공장가동률이 하락
- 이에 따라 GM, 포드의 경우 올해 3/4분기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3.1%, 27.6%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
- 자동차용 반도체와 완성차의 수급불균형은 부품 및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
-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61.8%는 최근의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차량 부품 생산을 10%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
- 미국의 경우에는 신차 공급이 감소하자 중고차가격이 9월 전년동월대비 23.2%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

[그림 3] 세계 물가상승률 추이



자료: IMF

[그림 4]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
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생산차질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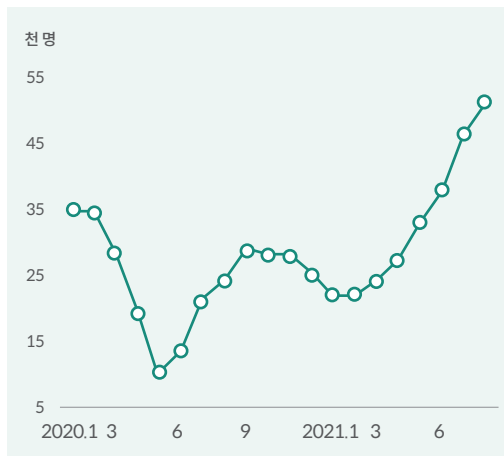


주: 직접 차량반도체 취급 업체(21개사) 대상 설문조사
자료: 한국자동차산업협회(2021.5)

▪ 유럽은 노동력 수급불일치, 원자재·기계부품 부족과 이에 따른 생산차질이 결합되어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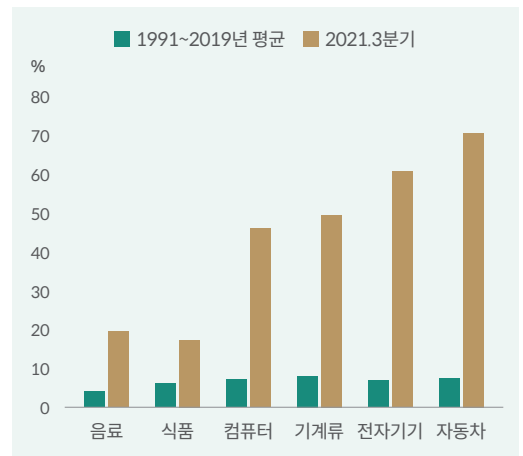
-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국가들은 코로나19로 자국으로 귀국했던 운송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귀가 지연되면서 트럭운전자, 항만컨테이너 하역부문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구인건수가 크게 증가
 - 영국 파이낸셜타임지(FT, 10.13일)에 따르면 EU내 트럭운전사의 부족은 40만여 명에 이릅니다
- 유로지역에서는 2021년 3/4분기 들어 원자재 및 기계 부족을 생산 제한 요인으로 보고한 기업 비중이 크게 상승
 -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약 71%의 기업들이 부품 부족으로 생산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

[그림 5] 영국의 운송 및 창고업 구인건수 추이



자료: ONS

[그림 6] 유로지역의 산업별 원자재 및 기계부품 부족 신고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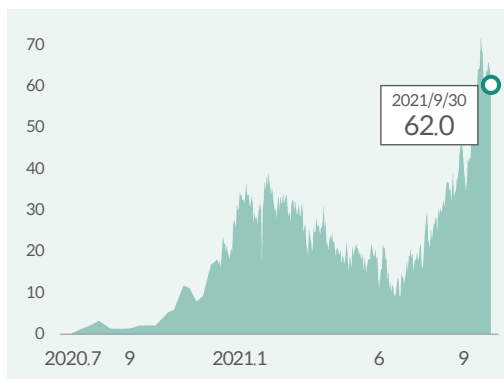
주: 생산 제한 요인으로 보고한 기업 비중

자료: Eurostat

▪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잦은 항만의 폐쇄와 하역인력 부족으로 화물의 적체 및 항만의 혼잡도가 심화되면서 물류비가 급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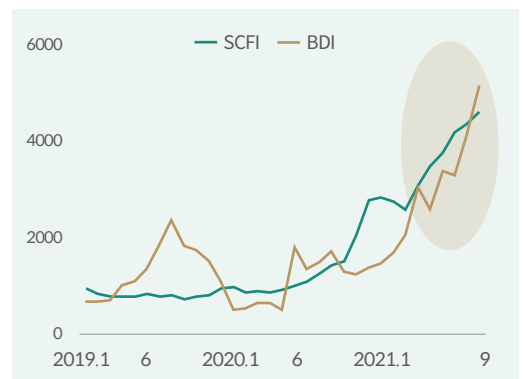
- 영국 FT(7.31일)는 항만 혼잡 등으로 상하이와 시카고 간 컨테이너운송 소요시간이 과거 35일에서 73일로 늘어났다고 보도
- 이에 따라 글로벌 해상화물운임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(SCFI), 발틱운임지수(BDI)가 올해 9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227%, 200% 상승하여 기업 물류비가 급등

[그림 7] 롱비치 항구 대기 컨테이너 수



자료: Bloomberg

[그림 8] 해상화물 운임지수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▪ 최근에는 중국의 국제정치적 문제가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부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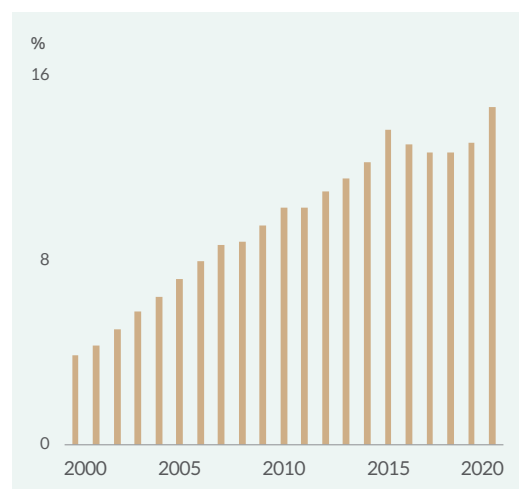
- 중국 정부의 호주산 석탄수입금지조치(2020년 10월) 시행 이후 중국 내 에너지 원료의 수급 혼란과 가격 급등으로 중국 생산자물가상승률이 2021년 1월 전년동월대비 0.3%에서 8월 9.5%로 급등
- 전 세계에 연간 2.6조 달러(2020년 기준)가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가격 상승은 세계 인플레이션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
-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원자재 공급망(중국의 수입)에 충격을 주어 국제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

[그림 9] 중국 생산자물가 추이



자료: CEIC

[그림 10] 세계 총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



자료: WTO

시사점

▪ 글로벌 공급망이 단기간 내 복구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당분간 공급망의 훼손이 국내외 물가 상승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-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공급망 타격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차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총 56.7%에 이른다(전경련, 2020년 5월)
-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훼손 현상은 백신 보급 지연, 변이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해소될지 여부는 불확실
-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조속한 회복은 저소득국가들에 대한 신속한 백신 보급 확대, 노동 인력의 빠른 복귀 여부 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
 - 글로벌 기업의 현지 생산공장이 밀집해 있는 베트남(11.8%), 태국(30.3%), 필리핀(19.8%) 등에서의 백신 접종률 증가는 현지 공장의 가동률을 높여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(괄호 안은 2021.10.4. 기준 백신접종률)
 - 노동시장에서는 변이바이러스 감염위험, 지역 폐쇄에 따른 이동 제한 등의 이유로 노동 인력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나 백신접종률 증가 시 노동자들의 사업장 복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